

발행인: 엄재일

편집인: 이한정

발행처: 한국언어정보학회

발행일: 2014년 4월 9일

URL: <http://society.kisti.re.kr/~ksli/>

110-745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이한정 교수 연구실내

전화: (02) 760-0251

e-mail: hanjung@skku.edu

## 1. 월례 논문 발표회 및 강독회

- ▶ 4월 월례 논문 발표회가 4월 19일 숙명여대 진리관 212호에서 열립니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한국어의 영논항(null arguments)과 조각문(fragments)’을 주제로 박명관 선생님(동국대), 박범식 선생님(동국대), 엄홍준 선생님(계명대)의 발표와 안희돈 선생님(건국대)과 조성은(영남대) 선생님의 공동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장소에 관한 안내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월례회 후 식사에 이어 강독회가 열립니다. 이번 강독회는 위혜경 선생님(단국대)께서 ‘Ellipsis and at-issueness’를 주제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강독 논문은 본 소식지와 함께 배포해 드리며, 강독회와 월례회 일정 및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월례회 또는 강독회에서 다루고자 희망하시는 주제 또는 논문이 있거나, 발표를 희망하시거나 발표자를 추천하고자 하시면 연구이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논문 발표회: 유은정 (ejyoo@snu.ac.kr), 전영철 (ycjun@snu.ac.kr), 양정석 (yjsyang@yonsei.ac.kr), 최승권 (choisk@etri.re.kr)

강독회: 김종복 (jongbokkim@gmail.com), 위혜경 (hkwee@dankook.ac.kr), 정소우 (swchung@sungshin.ac.kr)

## 2. 정기 학술대회 발표 논문 모집

- ▶ 『한국언어정보학회 2014 정기학술대회』가 6월 20일(금)-21일(토)에 서울대학교 신양인문관 (4동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의미와 인지’를 주제로 한 워크샵과 (사용 언어: 영어)와 ‘언어학과 언어처리의 만남’을 주제로 한 일반 논문 발표(사용 언어: 국어 혹은 영어)의 두 분야로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논문을 발표하시고자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아래 발표 신청과 초록 작성 요령을 참조하시어 논문 초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변의 여러 연구자들에게 홍보해 주시고 발표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워크샵 초청 특강:

- 제목: How Metalinguistic Negation Differs from Descriptive Negation: ERP and Other Evidence  
발표: 이정민 (서울대)
- 제목: Experimental syntax of genitive subject in Korean and Japanese: A view from prosody-syntax interface  
발표: Hiromu Sakai (Hiroshima University)
- 제목: Effects of conceptual structure in on-line sentence processing: Evidence from ERPs  
발표: 권나영 (건국대)

- ▶ 일반논문 초청 특강
  - 제목: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복합술어 구문  
발표: 홍재성 (서울대)
  - 제목: 패턴기반 다국어 자동번역  
발표: 최승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 발표 신청 및 초록 제출 마감: 2014년 4월 30일(수) [초록 분량: A4 용지 2~3매 (참고문헌 포함), 이 중 첫 페이지는 발표자와 논문 제목을 명시한 겉표지이며, 논문 초록 내용은 두 번째 페이지부터 시작함.] (주의 사항: 의미와 인지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자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워크샵 분야 발표'라고 명시하여 논문 초록을 보내주시기 바라오며, 언어학과 언어 처리, 혹은 다른 언어학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고자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일반 논문 발표 분야'라고 명시하여 논문 초록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표 원고 마감: 2014년 6월 9일(월) [발표 논문 작성 요령은 추후 공지]
- ▶ 초록 작성 요령:
  - 첫 페이지에 논문 제목, 발표 분야 ('워크샵 발표' 혹은 '일반 논문 발표'로 명시), 발표자 성함, 소속, 연락처를 적고, 다음 페이지부터 논문 제목과 내용을 작성
  - 형식: '한글'(97 버전 이상) 또는 MS word 사용  
한글 신명조 11pt, 영문 New Times Roman 11pt  
좌우여백 30mm, 상하여백 35mm, 줄 간격 155%
- ▶ 초록 보낼 곳: ksli2014@ksli.or.kr

### 3. [언어와 정보] 논문 모집

- ▶ [언어와 정보] 편집위원회는 상시 투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정보]에 논문을 게재 할 분들은 소정의 논문투고신청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음)와 심사용 논문(영문 요약 필수 포함)을 편집위원장인 류병래 교수(ryu@cnu.ac.kr 혹은 kslijournal@gmail.com)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심사용 논문은 아래아 한글이나 MS Word, LaTeX 등 어떠한 조판 시스템을 사용하셔도 되며, 스타일은 자유입니다. 그 외 논문 투고나 심사에 대한 규정은 학회 홈페이지 (<http://society.kisti.re.kr/~ksli/>)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상시 투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게재하고자 하는 특정 호수의 [언어와 정보]에 게재를 원하시면 발간일 기준 적어도 75일 이전에 투고를 하셔야 합니다. 2014년 발간 일정과 원고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마감일을 넘겨 투고한 논문은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적인 이유로 해당 호수의 [언어와 정보]에 게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제18권 1호 (2014년 6월 30일 발간): 2014년 4월 15일 원고 마감
  - 제18권 2호 (2014년 12월 31일 발간): 2014년 10월 15일 원고 마감
- ▶ [언어와 정보]는 일반 논문(general paper) 외에도 소고(squib), 서평 또는 논평(review), 또 이에 대한 답론(reply) 등 여러 형태의 투고를 받습니다. 논문 투고 시 투고 형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료: 60,000원 (3인 심사 기준, 추가 심사시 20,000원씩 추가)
  - 논문 게재료 (3인 심사, 20쪽 분량 기준):
    - 1) 연구비 수혜 논문: 270,000원 (심사료 포함 총 330,000원)
    - 2) 연구비 수혜를 받지 않은 일반논문:
      - (i) 저자 중 한 사람 이상이 전임인 경우 170,000원 (심사료 포함 총 230,000원)
      - (ii) 모든 저자가 전임이 아닌 경우 20,000원 (심사료 포함 총 80,000원)

- 참고

- 1) 논문 출판 시 라텍 편집비를 따로 받지 않음.
- 2) 논문의 분량은 최종 조판 기준 20쪽을 기준으로 하되, 30쪽까지는 별도의 추가 금액을 받지 않으나, 31쪽부터는 쪽당 10,000원을 게재료에 추가.

▶ 논문 투고에서 게재까지의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1] 투고신청서 작성 (투고자, 서식은 홈페이지) -> [2] 투고 (투고자) -> [3] 심사료 입금 (투고자) -> [4] 심사 의뢰\*3인 (편집위원회) -> [5] 심사 결과 취합 (편집위원회) -> [6] 심사 결과 통보 (편집위원회) -> (게재 확정된 경우 다음 절차 진행, 게재 불가인 경우 [6]에서 종료) -> [7] 수정 보완요구서 (편집위원회) -> [8] 수정보완이행확인서 (투고자) -> [9] 게재료 납부 (투고자) -> [10] 수정 논문 제출 (투고자) -> [11] LaTeX 조판 작업 (편집위원회) -> [12] 교정\*3회 (투고자) -> [13] 출판 (편집위원회/출판사)

▶ 논문 투고나 게재에 관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메일을 통하여 편집위원장인 류병래 교수 (ryu@cnu.ac.kr 혹은 kslijournal@gmail.com)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 우리 학회는 회원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신 회비로 운영됩니다.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해 연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월례 발표회장에서 또는 아래의 학회계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82-598367, 예금주: 김미숙)

연회비: 정회원 40,000원, 준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평생회비: 400,000원

**2003년 12월 이전 평생회비 납부 회원님들께서는 올해부터는 일반회원이 되어 4만원씩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래 명단 참조)**

▶ 회원주소록은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소 및 이메일,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은 변경된 내용을 총무이사 (hanjung@skku.edu)에게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교수님들과 신진학자 및 대학원생들이 신입회원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5. 2014년도 회비 납부 현황

▶ 평생회원: 강범모(고려대), 곽은주(세종대), 권희상(한밭대), 김용범(광운대), 김은주(이화여대), 김종복(경희대), 김지영(이화여대), 노용균(충남대), 박명관(동국대), 박병수(경희대), 박소영(상명대), 박은주(오사카대), 유은정(서울대), 윤영은(이화여대), 이기용(고려대), 이영현(조선대), 이익환(연세대), 이한정(성균관대), 이현우(인하대), 전영철(서울대), 정대호(한양대), 정재현(충북대), 조세연(강원대), 조영순(전남대), 최재웅(고려대), 최혜원(이화여대), 홍성심(충남대)

[2003년 12월 이전 평생회비 납부회원: 연회비 선납 처리 ~2012년]

김경애(한경대), 김경학(수원대), 김랑혜운(고려대), 김미경(대덕대), 김성목(SKT), 김용환(양산대), 김창익(호서대), 류병래(충남대), 윤애선(부산대), 윤평현(전남대), 이남근(조선대), 이민행(연세대), 이예식(경북대), 정소우(성신여대), 정찬(동서대), 채명희(조선이공대), 채희락(한국외대), 최규련(연세대), 최기선(KAIST), 최현숙(영남대), 한영균(연세대)

▶ 정회원: 송상헌(고려대), 염재일(홍익대), 이정민(서울대), 이주익(경북대), 장석진(서울대), 홍민표(명지대)

▶ 준회원: 윤혜림(홍익대)

- ▶ 명단에 착오나 누락 사항이 있으면 총무이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6. 월례회/강독회 장소 오시는 길

- ▶ 이번 학기 월례회와 강독회는 숙명여대 진리관에서 열립니다 (4월 19일: 진리관 212호, 5월 17일: 진리관 211호).
- ▶ 숙명여대 제1캠퍼스 오시는 길: 4호선 숙대입구 역 10번 출구에서 효창공원 방향으로 왼쪽으로 돌아와 갈월지하도를 건너 5분 정도 도보로 직진하면 오른쪽에 제1캠퍼스 정문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정문까지 도보로 약 10-15분). 버스와 자가운전으로 오시는 법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버스: <http://www.sookmyung.ac.kr/contents/contents.jsp?cmsCd=CM0071>  
자가운전: <http://www.sookmyung.ac.kr/contents/contents.jsp?cmsCd=CM0072>



- ▶ 주차: 정문 입구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시고, 할인권율 (4시간 주차 2천원) 총무이사를 통해 구입하시면 됩니다.
- ▶ 제1캠퍼스 진리관은 아래 지도에서 4번 건물입니다 (10번이 정문).
- ▶ 월례회 후 점심식사는 숙명여대 근처 '더함' 한정식(02-707-3692)에서 있습니다.



## 7. 학술대회 안내

- ▶ [CFP] The 21<sup>st</su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HPSG 2014)
  - 일시: 2014년 8월 27일~29일
  - 장소: Buffalo, New York, USA
  - 사이트: <http://linguistics.buffalo.edu/hpsg21/index.html>
  - 초록마감: 2014년 4월 15일
  
- ▶ [CFP] Workshop on Theoretical East Asian Linguistics
  - 일시: 2014년 9월 25일~26일
  - 장소: Nantes, France
  - 사이트: <http://www.teal9.univ-nantes.fr>
  - 초록마감: 2014년 6월 21일
  
- ▶ [CFP] The 28<sup>th</sup> Pacific Asia Conference on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ing (PACLIC 28)
  - 일시: 2014년 12월 12일~14일
  - 장소: Bangkok, Thailand
  - 사이트: <http://ling.arts.chula.ac.th/paclic28/index.html>
  - 초록마감: 2014년 7월 31일
  
- ▶ [CFP] The 2015 Annual Meeting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 일시: 2015년 1월 8일~11일
  - 장소: Portland, USA (Hilton Portland & Executive Tower)
  - 사이트: <http://www.linguisticsociety.org/content/2015-annual-meeting>
  - 초록마감: 2014년 7월 31일

**한국언어정보학회 2014학년도 4월 월례회 및 강독회 일정표**  
**월례회 장소: 숙명여대 진리관 212호    일시: 4월 19일 9:30 – 12:20**  
**주제: 한국어의 영논항(null arguments)과 조각문(fragments)**

시간	구분	발표자	논문제목	사회
09:30-10:10	일반	박범식 (동국대)	Revisiting Null Arguments and Beyond	유은정 (서울대)
10:10-10:50	일반	박명관 (동국대)	A Case against the Ellipsis Analysis of the Null Argument in Korean	
Coffee Break (10분)				
11:00-11:40	일반	엄홍준 (계명대)	pro 분석과 생략분석에 의한 한국어 영논항 고찰	
11:40-12:20	일반	안희돈 (건국대) 조성은 (영남대)	On Two Types of Fragments in Korean	

강독회 장소: 숙명여대 진리관 212호    일시: 4월 19일 14:30 – 16:00  
 주제: Ellipsis and at-issueness

발표자	위혜경 (단국대)
논문	AnderBois, Scott. 2010. Sluicing as anaphora to issues. <i>Proceedings of SALT 20</i> : 451-470. Barros, Matthew. 2012. A Non-repair approach to island sensitivity in contrastive TP ellipsis. To be published in the <i>Proceedings of CLS 48</i> .

**2014년 4월 월례회 발표논문 초록**

**Revisiting Null Arguments and Beyond**

박범식 (동국대)

Identifying the null argument in Korean has been a very controversial issue in the literature. Two major approaches have been proposed: ellipsis approach (Kim 1999, Saito 2007, Um 2011, Lee 2011) and *pro* approach (Hoji 1998, Ahn and Cho 2010, 2012a,b). The aim of this talk is two-fold. I will first re-introduce the main arguments for the hybrid approach that claims the null argument may involve either *pro* or ellipsis (Park and Bae 2012, Park and Oh 2013a,b). By providing more arguments, I will attempt to strengthen the claim that "the exact identity reading" of the null argument can be best captured only by the ellipsis approach (Park and Oh 2013a). Second, I will critically review Choi's (2013) claim that AdjP and AdvP can also be construed as *pro*.

**A Case against the Ellipsis Analysis of the Null Argument in Korean**

박명관 (동국대)

Takahashi(2008:310)는 일본어에서 (1b)의 영논항이 (2b)의 가시적 대명사 목적어와 다르게 해석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 (1) a. Hanako-ga taitei-no sensei-o sonkeisiteiru.  
 Hanako-NOM most-GEN teacher-ACC respect  
 'Hanako respects most teachers.'
- b. Taroo-mo e sonkeisiteiru.  
 Taroo-also respect  
 '(Lit.) Taroo respects, too.'
- (2) a. Hanako-ga taitei-no sensei-o sonkeisiteiru.  
 Hanako-NOM most-GEN teacher-ACC respect  
 'Hanako respects most teachers.'

b. Taroo-mo karera-o sonkeisiteiru.

Taroo-also them-Acc respect

'Taroo respects them, too.'

(2b)에서 가시적 대명사 목적어 *karera-o* 'them'은 지시적이거나 조음적(anaphoric)일 수 있다. 이 대명사가 선행 문장 (2a)의 양화적(quantificational) 목적어를 조음하는 후자 해석의 경우, 이 대명사는 Evans(1980)가 명명한 E-유형 대명사로 역할한다. 이 경우, 문장 (2b)는 'Taroo also respects those teachers that Hanako respects'로 이해된다.

그러나 (1b)의 영목적어는 조음적 용법으로서 (2b)의 가시적 대명사 목적어가 갖는 E-유형 대명사로의 해석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해석을 갖는다. 이 추가적인 해석에서 영목적어는 선행문장 (1a)의 목적어 *taitei-no sensei-o* 'most teachers'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즉, (1b)는 'the set of teachers that Taroo respects can be different from the set of teachers that Hanako respects'로 해석된다.

Takahashi는 가시적 목적어와 대비하여 영목적어가 갖는 추가적인 해석이 영목적어가 가시적 목적어와 다른 통사적 범주임을 보이는 것으로 논증하고 있다. 다시 말해, Takahashi는 (1b)의 영목적어가 다음 (3)에서 보이는 것처럼 통사적으로 반복되는 양화적 표현을 생략함으로써 도출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3)에서 중간선은 생략 운용을 적용한 것을 표시함).

(3) a. Hanako-ga taitei-no sensei-o sonkeisiteiru.

Hanako-NOM most-GEN teacher-ACC respect

'Hanako respects most teachers.'

b. Taroo-mo ~~taitei-no~~ ~~sensei-o~~ sonkeisiteiru.

Taroo-also most-GEN teacher-ACC respect

'(Lit.) Taroo respects, too.'

본 논의는 Takahashi의 위 제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일본어의 영목적어와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우리말 영목적어의 통사적 정체를 밝히는데 있다. 사실 본 논의는 우리말과 일본어의 영목적어의 분포를 관찰하면서 Takahashi의 제안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논증이라기보다는 영목적어의 경험적 자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말과 일본어 영목적어의 분포와 해석이 우리말과 일본어 명사구 구조의 범언어적 특이성과 이에 따른 조음적/대명적 표현의 언어-특정적 용법에 기인함을 보일 것이다.

## pro 분석과 생략분석에 의한 한국어 영논항 고찰

엄홍준 (계명대)

한국어에서의 영논항에 대한 연구는 크게 생략 분석과 pro 분석으로 나누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Hoji(1998)의 연구를 필두로 한 pro 분석 여기에는 Ahn & Cho(2009, 2010 등 그 외 다수)의

무수한 논문들과 박명관(출판예정)의 논문들이 그 주장에 동조하고 있으며, Kim(1999)의 연구를 필두로 Takahasi(2008)의 논문들이 생략 분석에 그 무게의 추를 두고 있다.

아래의 문장에서부터 논쟁이 점화되고 있는데 이 문장에 대한 Takahasi (2008)의 논증은 다음과 같다.

(1) a. Taroo-wa sannin-no sensei-o sonkeisiteiru.

Taroo-TOP three-GEN teacher-ACC respects

타로-는 세 명-의 선생님-을 존경한다

'Taroo respects three teachers.'

b. Hanako-mo e sonkeisiteiru.

Hanako-also respects

하나코-도 존경한다

'(Lit.) Hanako respects e, too.'

(2) a. John respects three teachers.

b. Mary respects them, too.

c. Mary does, too.

(1b)의 문장에서 만약 영목적어가 생략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두 가지의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코와 타로가 존경하는 선생님 세 명이 같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것이다. 반면에 pro라고 가정한다면 즉 (21b)에서처럼 영어의 대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의 해석은 즉 '하나코와 타로가 존경하는 세 명의 선생님'이, 같지 않은 경우의 해석은 나오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한국어에서도 일치한다.

(3) a. 철수는 세 명의 선생님을 존경한다.

b. 영희도 또한 존경한다.

(3b)에서 볼 수 있듯이 '영희가 존경하는 선생님 세 명'과 '철수가 존경하는 세 명'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이 Ahn & Cho (2010)에서부터 제기되어 pro 분석으로도 얼마든지 생략 분석에서의 해석을 얻을 수 있음이 논증된다. 또한 그들은 생략 분석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하여 오히려 pro 분석이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논쟁의 중심에 있는 문장들은 다음의 문장들이다.

(4) A: Chelswu-ka casin-ul pinanhay-ss-ta.

Chelswu-Nom self-Acc criticize-Past-Dec

철수-가 자신-을 비난해-ㅅ-다.

'Chelswu criticized himself.'

B: Yenghii-to eci pinanhay-ss-ta.

Y.-also criticize-Past-Dec



영희-도 비난해-쓰-다.

'Yenghi criticized, too.'

즉 (4B)는 '영희도 철수를 비난했다.'는 엄밀동일해석뿐만 아니라 '영희도 영희 자신을 비난했다'는 이완동일해석도 산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논항은 생략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생략 분석이다. 이에 대해 Ahn & Cho(2011)는 Hoji(1998)가 제시한 일본어 분석을 예를 들어 (4B)는 이완동일해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유사이완동일해석(sloppy-like reading)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5) A: John-ga zibunzisin-o suisensita.

John-Tom self-Acc recommended

존-이 자신-을 추천했다.

'John recommended himself.'

B: Billi-mo eci suisensita.

Bill-also recommended

빌-도 추천했다.

'Bill recommended too.'

Hoji(1998)는 (4B)의 이완동일해석은 (5B)에서의 동지시해석(coreferential interpretation)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문장들도 또한 여전히 논쟁 중인 것으로 보인다.

(6) A: 모든 1학년 학생들이 자기 불을 찾다.

B: 모든 2학년 학생들도 [e] 찾다. (박명관 출판 예정의 예문 23)

이 문장에 대해서 Saito(2007) 이완동일해석 또는 유사이완동일해석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의 영논항은 생략 분석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반론 또한 Ahn & Cho (2011)과 Park(출판예정)에서 이어진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본 예문들을 바탕으로 생략 분석과 pro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어에서의 영논항의 본질에 대해 더 근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박명관. 출판예정. **일본어 영논항의 생략 분석: 무엇이 문제인가?**

Ahn, H-D. & S. Cho. 2010. More on the absence of CP ellipsis: A reply to Park (2009).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0: 549-576.

Ahn, H-D. & S. Cho. 2011a. Notes on apparent DP ellipsis : A reply to Lee & Kim (2010).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6 : 457-471

Ahn, H-D. & S. Cho. 2011b. On sloppy-like interpretation of null arguments. *Linguistic Research* 28, 471-492.

Ahn, H-D. & S. Cho. 2012. on the nature of zero realization of argument: a reply to Lee & Kim (2011). *Linguistic Research* 29, 1-20

- Hoji, H. 1998. Null object and sloppy identity in Japanese. *Linguistic Inquiry* 29:127–152.
- Saito, Mamoru. 2007. Notes on East Asian argument ellipsis. *Language Research* 43: 203–227.
- Takahashi, D. 2008. Noun phrase ellipsis. In Shigeru Miyagawa and Mamoru Saito (eds.), *The Oxford Handbook of Japanese Linguistics*, 394–42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On Two Types of Fragments in Korean

안희돈 (건국대) · 조성은 (영남대)

Fragments convey the same propositional content that their full sentential counterparts do. The form-function mismatch of fragments has been one of the non-trivial issues in syntax, semantic and pragmatics. We suggest that there are two types of fragments in Korean, and they have different derivational processes and interpretative mechanism. Case-marked fragments have full sentential structures prior to ellipsis and the interpretation follows from the sentential structures that are the sources of propositional interpretations. Caseless fragments, on the other hand, are base-generated nonsentential XPs whose interpretations come directly from pragmatics-discourse. Patterns of fragments containing negative polarity items or temporal adverbs support our claim that caseless fragments do not correlate with any sentential source. One of the issues regarding the architectures of grammar is whether the pragmatic/semantic factors come into play independently from syntax. Culicover & Jackendoff (2005) suggest that the grammar consists of parallel generative components, at least independent components for phonology, syntax, and semantics, each of which creates its own type of combinatorial complexity (this architecture of grammar is often called parallelism). We aim to defend the syntactocentrism advocated in Minimalism led by Chomsky (1995) that the grammar permits sound structure and semantic/pragmatic structure to interact only by way of syntax proper by exploring two kinds of fragments in Korean.

We further suggest that Caseless fragments are just CPs directly dominating nonsentential NPs. The analysis of Caseless fragments in Korean raises non-trivial problems in three phenomena: P-stranding, quantifier scope, and anaphoric binding. Merchant (2004) argues that fragments and their sentential correlates show parallelism with respect to P-stranding. Interestingly, in Korean, P-stranding is allowed in fragments unlike their sentential correlates. We suggest that the apparent P-stranding is a consequence of the existence of Caseless fragments. Regarding scope interaction, Caseless fragments yield only wide scope reading with respect to another scope bearing element. We suggest that it is related to the complex structure of quantifiers put forward in our previous works where quantifier fragments are all analyzed in some sense as Case-marked fragments. Hence, argument quantifier and adjunct quantifier can display the same scope patterns. With respect to anaphoric binding, we note that Caseless fragments of anaphors show distribution different from their full sentential correlates in both subject and object positions, which may further support our analysis of Caseless fragments in Korean; namely, Caseless fragments are directly generated as XPs without full sentential structures.